

3. 전라남도 항목

- 3-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이상적인 자녀수
- 3-2. 걱정되는 질환
- 3-3. 흡연 및 금연 여부
- 3-4. 편의시설 수요
- 3-5.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 3-6.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 3-7.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 3-8. 독서여부 및 독서량
- 3-9. 야간활동 안전성
- 3-10. 도로명주소 활용률
- 3-11. 행정정보 획득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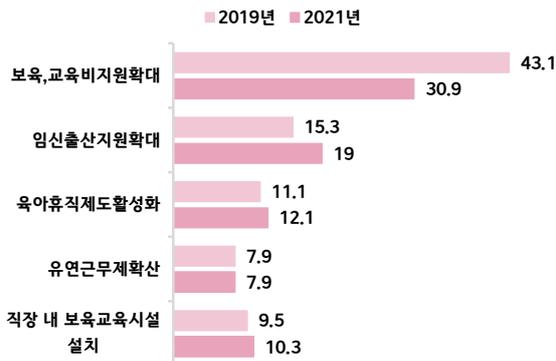
3 - 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확대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확대가 필요함
 -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위해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확대’가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임신출산 지원확대’(19.0%), ‘육아휴직제도 활성화’(12.1%) 순으로 높은 비율을 가짐
 - ‘임신출산 지원확대’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유연 근무제 확산’은 30~59세의 연령에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자녀 수는 2~3명이 이상적이라고 나타남
 -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한 응답으로 ‘2명’이 5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3명’(28.4%), ‘1명’(12.2%)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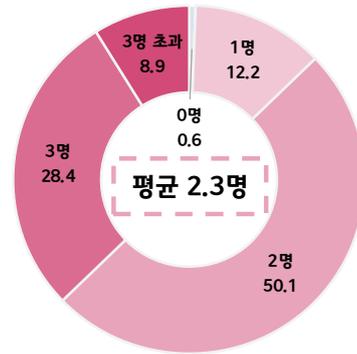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단위 : %)



◀ 이상적인 자녀 수 ▶

(단위 :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1)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다중응답)

(단위 : %)

구분	계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확대	임신출산 지원확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유연 근무제 확산	직장 내 보육교육 시설 설치 활성화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향상	출산육아 휴직 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기타
2021년	100.0	30.9	19.0	12.1	7.9	10.3	7.1	7.0	4.7	1.2
2019년	100.0	43.1	15.3	11.1	7.9	9.5	4.8	5.5	2.7	0.2
연령별										
15~29세	100.0	38.1	16.4	7.5	7.8	13.0	4.0	8.2	4.2	0.8
30~39세	100.0	26.3	14.4	15.1	10.1	11.2	5.8	12.0	3.9	1.2
40~49세	100.0	26.8	18.2	10.9	11.5	10.0	8.3	7.9	3.2	3.2
50~59세	100.0	25.3	15.8	14.3	10.1	12.1	9.2	7.4	5.6	0.2
60세 이상	100.0	33.2	22.6	12.4	5.2	8.4	7.1	4.9	5.1	1.0
65세 이상	100.0	34.2	22.7	11.9	5.3	8.4	6.5	4.8	4.7	1.4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2) 이상적인 자녀 수

(단위 : %)

구분	평균	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6명 초과
2021년	2.3	100.0	0.6	12.2	50.1	28.4	7.2	1.3	0.3	0.1
2019년	2.4	100.0	1.7	10.1	52.6	22.9	9.1	2.5	0.6	0.5

3 - 2. 걱정되는 질환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암과 치매를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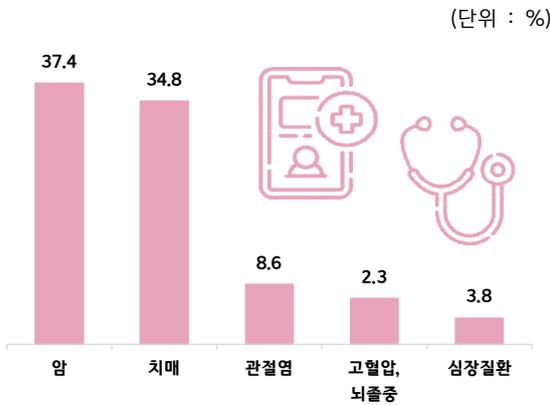
· 장성군민이 걱정하는 질환은 암과 치매로 나타남

- 걱정되는 질환으로 '암'(37.4%)과 '치매'(34.8%)를 가장 높게 응답함
- '암'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는 반면 '관절염'과 '치매'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관절염'은 60세 이상(13.7%)과 65세 이상(15.3%)에서 확연하게 높은 응답비율이 나타나고 '피부병'은 특히 40대 미만의 연령대에서 걱정하는 질환임이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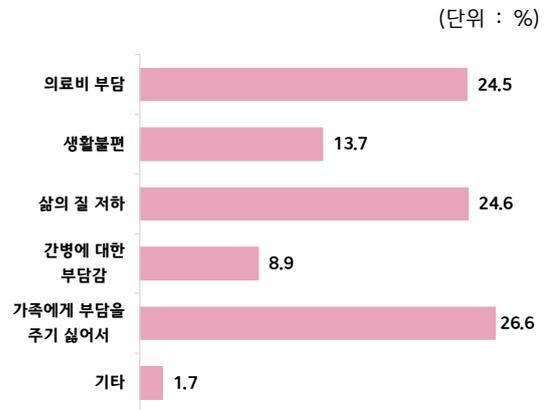
· 걱정하는 이유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라는 항목이 높게 나타남

-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는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삶의 질 저하'(24.6%), '의료비 부담'(24.5%) 순으로 높은 비율을 가짐
- 60대 미만은 '의료비 부담'과 '삶의 질 저하'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60대 이상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라는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남
- 60세 이상(11.4%)과 65세 이상(11.5%)은 '간병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항목에서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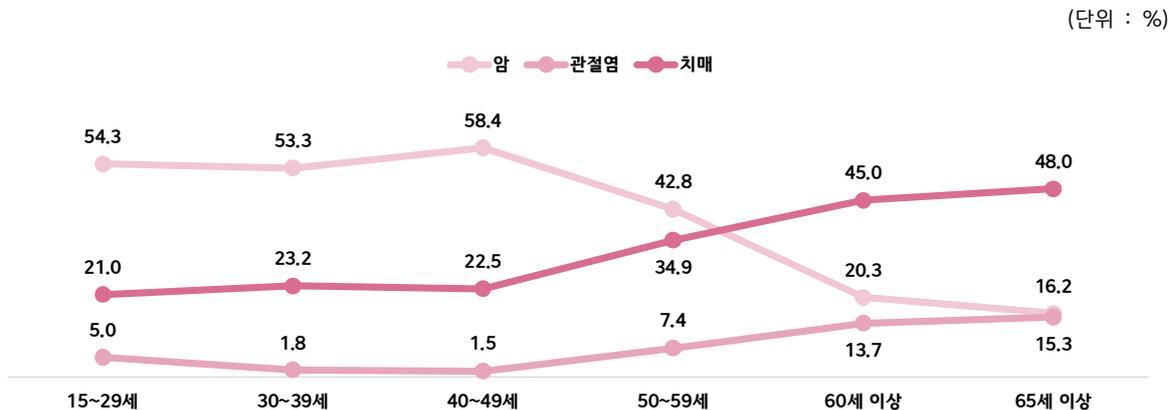
<< 걱정하는 질환 >>



<< 걱정하는 이유 >>



<< 연령대별 걱정하는 질환 >>



걱정되는 질환 - (1) 걱정하는 질환

(단위 : %)

구 분	계	암	관절염	고혈압, 뇌졸중	당뇨	치매	치과 질환	안과 질환	심장 질환	피부병	기타
2 0 2 1 년	100.0	37.4	8.6	6.6	2.3	34.8	1.9	0.8	3.8	0.5	3.3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54.3	5.0	4.4	0.0	21.0	6.0	1.7	1.7	2.9	3.0
3 0 ~ 3 9 세	100.0	53.3	1.8	8.2	3.1	23.2	2.0	1.9	2.1	1.1	3.3
4 0 ~ 4 9 세	100.0	58.4	1.5	3.8	1.8	22.5	3.6	0.0	4.2	0.0	4.2
5 0 ~ 5 9 세	100.0	42.8	7.4	4.7	4.4	34.9	0.5	0.6	3.4	0.0	1.2
6 0 세 이상	100.0	20.3	13.7	8.7	2.1	45.0	0.7	0.6	4.9	0.0	4.0
6 5 세 이상	100.0	16.2	15.3	9.6	1.9	48.0	0.7	0.4	4.5	0.0	3.4

걱정되는 질환 - (2) 걱정하는 이유

(단위 : %)

구 분	계	의료비 부담	생활불편	삶의 질 저하	간병에 대한 부담감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기타
2 0 2 1 년	100.0	24.5	13.7	24.6	8.9	26.6	1.7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39.8	14.0	20.2	5.8	17.2	2.9
3 0 ~ 3 9 세	100.0	23.0	13.9	31.1	5.5	24.3	2.2
4 0 ~ 4 9 세	100.0	36.2	6.7	27.0	7.9	18.7	3.4
5 0 ~ 5 9 세	100.0	21.9	10.2	33.8	7.5	26.0	0.5
6 0 세 이상	100.0	17.5	17.1	20.2	11.4	32.6	1.2
6 5 세 이상	100.0	16.3	19.0	18.6	11.5	33.5	1.0

3 - 3. 흡연 및 금연 여부

담배를 피우는 군민의 하루 흡연량은 주로 6~10개비 금연이 어려운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

• 담배를 피우는 군민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6~10개비라고 응답함

- 흡연 여부는 '피운다'가 14.2%, '피우지 않는다'는 85.8%로 나타나며 피운다고 응답한 군민 중 39.7%는 하루 평균 흡연량이 6~10개비라고 응답함
- 2019년(84.9%)에 비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0.9%p 증가함
- '피우지 않는다'(83.5%)라고 응답한 군민 중 22.0%는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으며 '피워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8.0%로 나타남

• 흡연자의 2명중 1명은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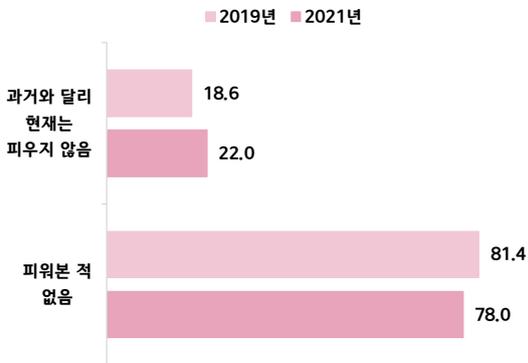
- 금연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48.6%, '없다'는 51.4%로 나타남
- 2019년(42.2%)에 비해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6.4%p 증가함

• 금연을 못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으로 조사됨

- '스트레스 때문에' 금연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30.8%), '금단증세가 심해서'(12.6%) 순으로 높은 비율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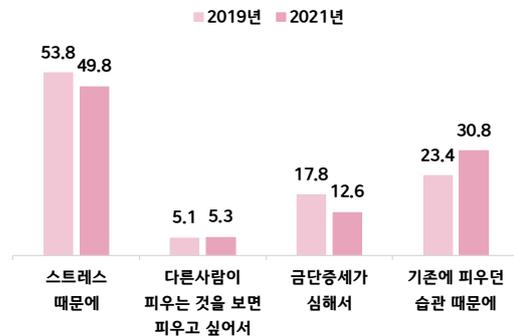
◀◀ 흡연여부(피우지 않는다)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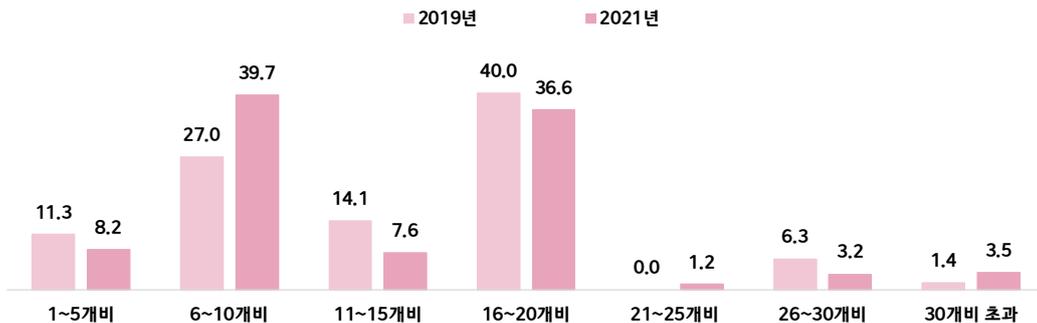
◀◀ 금연을 못하는 이유 ▶▶

(단위 : %)



◀◀ 하루 평균 흡연량 ▶▶

(단위 : %)



흡연 및 금연 여부 - (1) 흡연여부 및 흡연정도(계속)

(단위 : %)

구 분	계	피운다	소계								피우지 않는다
			1~5개비	6~10개비	11~15개비	16~20개비	21~25개비	26~30개비	30개비초과		
2021년	100.0	14.2	100.0	8.2	39.7	7.6	36.6	1.2	3.2	3.5	85.8
2019년	100.0	15.1	100.0	11.3	27.0	14.1	40.0	0.0	6.3	1.4	84.9

흡연 및 금연 여부 - (1) 흡연여부 및 흡연정도

(단위 : %)

구 분	계	피운다	피우지 않는다	소계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피워본 적이 없다	
2021년	100.0	14.2	85.8	100.0	22.0	78.0
2019년	100.0	15.1	84.9	100.0	18.6	81.4

흡연 및 금연 여부 - (2) 금연시도 여부

(단위 : %)

구 분	계	있다	없다
2021년	100.0	48.6	51.4
2019년	100.0	42.2	57.8

흡연 및 금연 여부 - (3) 금연을 못하는 이유

(단위 : %)

구 분	계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우는 것을 보면 피우고 싶어서	금단증세가 심해서	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	기타
2021년	100.0	49.8	5.3	12.6	30.8	1.5
2019년	100.0	53.8	5.1	17.8	23.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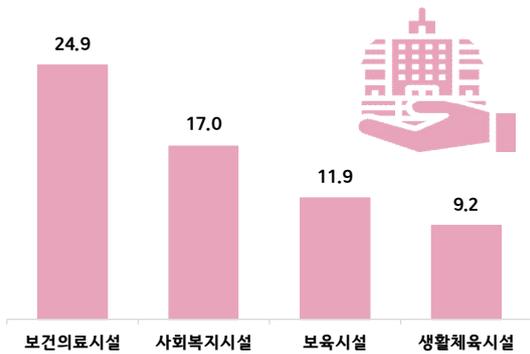
3 - 4. 편의시설 수요

장성군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의시설은 보건의료시설

-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의시설은 보건의료시설로 나타남
 - ‘보건의료시설’은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사회복지시설’(17.0%), ‘보육시설’(11.9%)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편의시설 수요는 성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편의시설 수요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
 - ‘교육시설’은 30~39세와 40~49세에서 집중적인 응답비율을 보이고 ‘대중교통시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15~29세에서 매우 높은 응답비율이 나타남
 - ‘문화예술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시설’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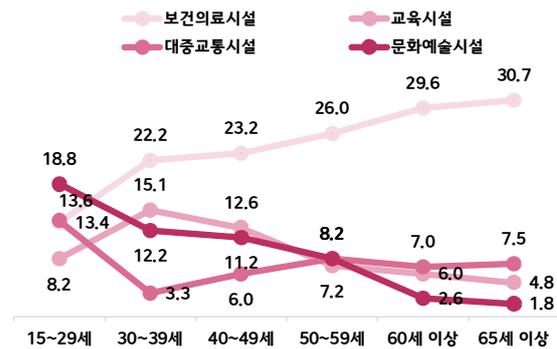
« 편의시설 수요 »

(단위 : %)



« 연령별 주요한 편의시설 수요 »

(단위 : %)



편의시설 수요(다중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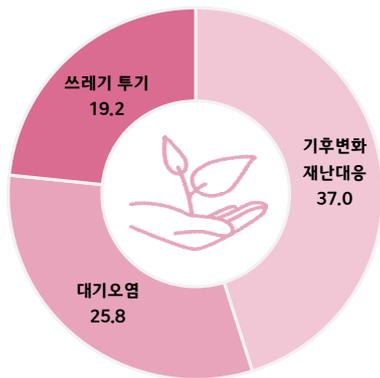
구분	계	보육시설	교육시설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시설	도로 및 주차시설	문화예술시설	생활체육시설	판매상업시설	상하수도시설	기타
2021년	100.0	11.9	8.3	24.9	17.0	7.7	5.7	8.2	9.2	4.9	1.3	0.9
〈 연령별 〉												
15~29세	100.0	10.3	8.2	13.4	6.9	13.6	5.2	18.8	15.5	7.1	0.6	0.4
30~39세	100.0	19.5	15.1	22.2	9.8	3.3	6.2	12.2	7.9	2.8	1.0	0.0
40~49세	100.0	11.0	12.6	23.2	12.6	6.0	9.0	11.2	10.0	3.2	0.4	0.7
50~59세	100.0	9.4	7.2	26.0	14.4	8.2	6.9	8.2	10.4	6.5	2.5	0.4
60세 이상	100.0	12.2	6.0	29.6	24.7	7.0	4.2	2.6	6.4	4.5	1.4	1.6
65세 이상	100.0	11.3	4.8	30.7	26.2	7.5	4.4	1.8	6.2	4.3	1.3	1.6

3 - 5.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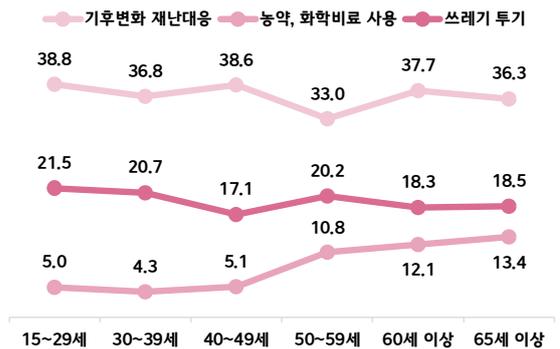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환경 문제는 대기오염에서 기후변화 재난대응으로 변화

-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기후변화 재난대응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 재난대응’은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대기오염’ 25.8%, ‘쓰레기 투기’ 19.2% 순으로 나타남
 - 2019년에는 ‘대기오염(37.5%)’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 재난대응’은 10.9%로 2021년과 비교하여 26.1%p 차이를 보임
-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
 - ‘기후변화 재난대응’과 ‘쓰레기 투기’는 15~29세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이 나타나는 반면, ‘농약, 화학비료 사용’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상위 3개 항목) ▶



◀ 환경문제에 대한 연령별 인식 ▶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계	기후변화 재난대응	유해 화학물질 사용	방사능 물질위험	대기오염	농약, 화학비료 사용	수돗물 오염	쓰레기 투기	기타	
2021년	100.0	37.0	3.4	2.6	25.8	9.2	2.3	19.2	0.6	
2019년	100.0	10.9	4.6	3.9	37.5	16.0	4.2	22.3	0.6	
◀ 연 령 별 ▶										
15~29세	100.0	38.8	2.3	3.4	25.5	5.0	3.5	21.5	0.0	
30~39세	100.0	36.8	1.0	6.0	31.2	4.3	0.0	20.7	0.0	
40~49세	100.0	38.6	4.1	2.1	29.4	5.1	3.2	17.1	0.4	
50~59세	100.0	33.0	3.7	3.9	25.7	10.8	2.1	20.2	0.6	
60세 이상	100.0	37.7	3.8	1.4	23.7	12.1	2.1	18.3	0.8	
65세 이상	100.0	36.3	3.5	1.1	24.2	13.4	2.1	18.5	0.9	

3 - 6.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 문제

·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건강문제'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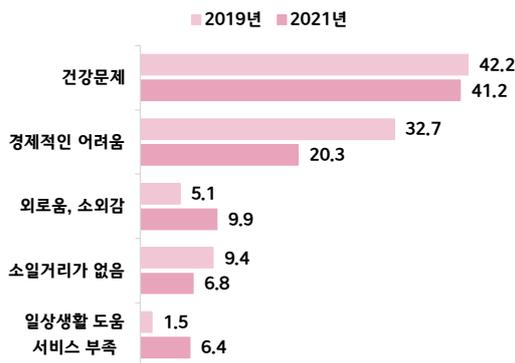
- '건강 문제'가 응답비율 41.2%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20.3%, '외로움, 소외감' 9.9% 순으로 나타남
- 2019년에는 '건강문제'가 4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32.7%를 차지하며 2021년(32.7%)보다 12.4%p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
- 성별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응답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지역별에서도 건강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남

-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항목에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비율로 응답한 지역은 중부권으로 조사됨
- 북부권의 경우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에 13.4%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큰 비율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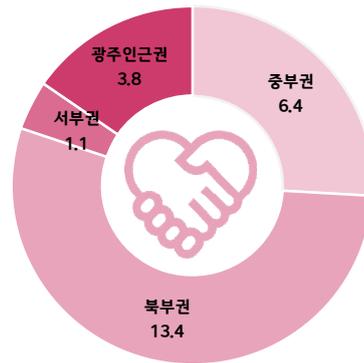
«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

(단위 : %)



« 지역별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 »

(단위 : %)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다중응답)

(단위 : %)

구분	계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소일거리가 없음	건강 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으로부터 냉대	사회에서의 경로 의식 약화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	노인 복지시설 부족	기타
2021년	100.0	20.3	5.1	6.8	41.2	9.9	0.5	5.4	6.4	3.0	1.5
2019년	100.0	32.7	2.4	9.4	42.2	5.1	0.7	3.2	1.5	2.0	0.9
〈 지역 별 〉											
중부권	100.0	24.6	7.1	6.8	35.7	10.3	0.5	5.0	6.4	2.6	1.0
북부권	100.0	17.7	1.2	2.8	42.7	14.6	0.4	2.0	13.4	3.4	1.8
서부권	100.0	18.8	6.9	9.2	44.2	6.2	0.0	8.8	1.1	3.7	1.2
광주인근권	100.0	14.6	2.6	9.5	50.3	7.2	2.0	5.6	3.8	1.3	3.3

3 - 7.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정책이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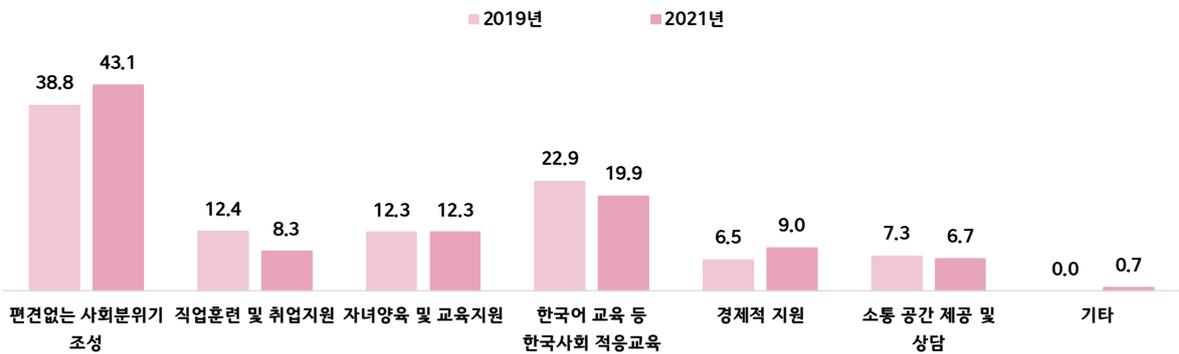
- 2019년과 동일하게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1순위인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2019년에는 2순위인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교육’과 15.9%p 차이를 보였으나 2021년도에는 2순위인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교육’과 23.2%p로 더 큰 격차가 발생함

· 모든 연령에서 마찬가지로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

- 연령별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 40~49세가가 45.4%로 가장 높고 15~29세가 39.0%로 가장 낮음

◀◀ 연도별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정책 ▶▶

(단위 : %)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단위 : %)

구분	계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교육	경제적 지원	소통 공간 제공 및 상담	기타
2021년	100.0	43.1	8.3	12.3	19.9	9.0	6.7	0.7
2019년	100.0	38.8	12.4	12.3	22.9	6.5	7.3	0.0
〈연령별〉								
15~29세	100.0	39.0	14.7	12.2	17.2	7.1	8.6	1.2
30~39세	100.0	40.7	4.2	16.7	22.0	8.1	7.1	1.1
40~49세	100.0	45.4	7.1	17.8	17.7	7.3	4.2	0.6
50~59세	100.0	40.5	7.7	12.6	20.0	8.3	10.2	0.6
60세 이상	100.0	45.2	7.5	9.8	21.0	10.6	5.3	0.5
65세 이상	100.0	44.4	7.0	9.8	21.0	11.5	5.9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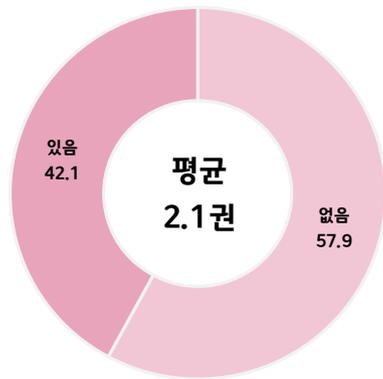
3 - 8. 독서여부 및 독서량

장성군민의 평균 독서량은 2.1권 독서량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 **장성군민 10명 중 6명은 지난 1년간 독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독서여부에 대하여 ‘없음’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1~5권’ 33.7%, ‘6~10권’ 5.1%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없음’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1~5권’이 높은 응답비율을 가짐
 - 15~29세는 4.2권으로 평균 독서량이 가장 많음
 - 65세 이상은 0.7권으로 독서량이 가장 적음
- **2019년에 비하여 독서량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감소함**
 - 독서량 만족여부에 대하여 ‘충분하다’는 5.9%로 2019년(8.5%)에 비해 소폭(2.6%p) 감소함
- **독서량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라고 조사됨**
 - 2019년과 마찬가지로 독서량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가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가 28.2%의 비율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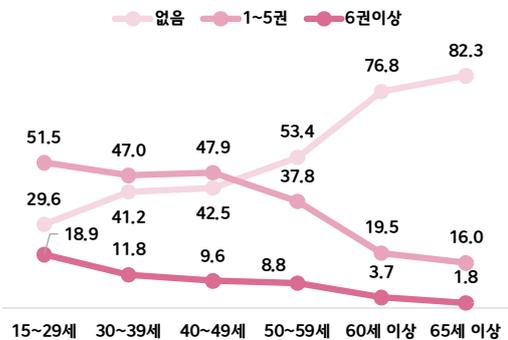
◀ 독서여부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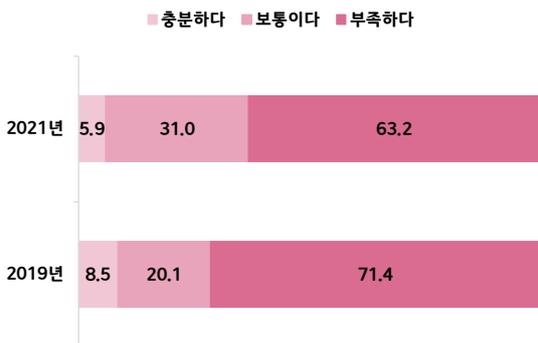
◀ 연령별 독서량 비율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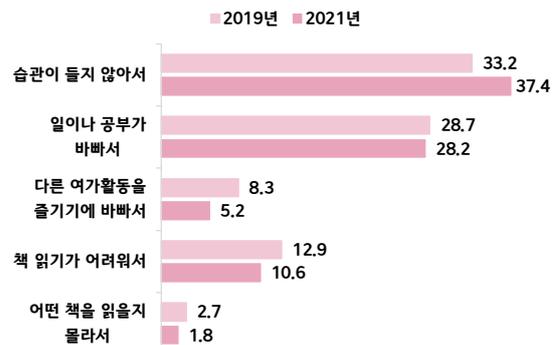
◀ 독서량 만족도 여부 ▶

(단위 : %)



◀ 독서량 부족이유 ▶

(단위 : %)



독서여부 및 독서량 - (1) 독서여부 및 만족도

(단위 : 권, %)

구 분	평균	계	없음	1~5권	6~10권	11~20권	21~30권	31권 이상
2021년 〈연령별〉	2.1	100.0	57.9	33.7	5.1	2.1	0.9	0.3
15~29세	4.2	100.0	29.6	51.5	10.6	4.5	3.8	0.0
30~39세	3.1	100.0	41.2	47.0	7.4	3.3	0.0	1.1
40~49세	2.2	100.0	42.5	47.9	6.9	2.7	0.0	0.0
50~59세	2.7	100.0	53.4	37.8	5.7	1.5	1.0	0.6
60세 이상	1.0	100.0	76.8	19.5	2.0	1.1	0.4	0.2
65세 이상	0.7	100.0	82.3	16.0	1.0	0.3	0.2	0.3

독서여부 및 독서량 - (2) 독서량 만족여부

(단위 : %)

구 분	계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충분한 편이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다	매우 부족하다
2021년	100.0	5.9	1.4	4.5	31.0	63.2	29.8	33.3
2019년	100.0	8.5	1.9	6.6	20.1	71.4	35.2	36.2

독서여부 및 독서량 - (3) 독서량 부족이유(다중응답)(계속)

(단위 : %)

구 분	계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일이나 공부 가 바빠서	다른 여가활동을 즐기기에 바빠서	몸이 불편하여 책 읽기가 어려워서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2021년	100.0	37.4	28.2	5.2	10.6	1.8
2019년	100.0	33.2	28.7	8.3	12.9	2.7

독서여부 및 독서량 - (3) 독서량 부족이유(다중응답)

(단위 : %)

구 분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책을 읽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책을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책을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타
2021년	1.1	0.2	0.4	3.8	9.0	2.3
2019년	1.4	0.2	0.3	2.3	9.1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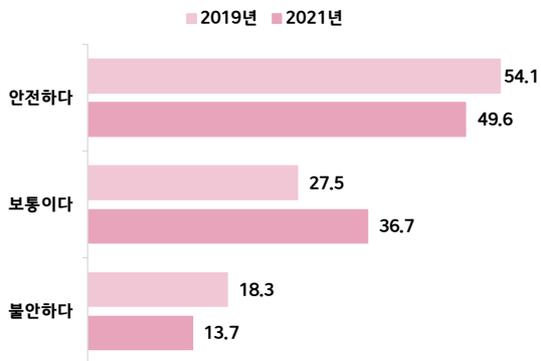
3 - 9. 야간활동 안전성

야간활동이 불안한 가장 큰 원인은 가로등이 없어서

- **장성군민 2명중 1명은 야간활동 안전성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낌**
 - 야간활동 안전성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49.6%, ‘보통이다’ 36.7%, ‘불안하다’ 13.7%로 나타남
 - 광주인근권의 경우 야간활동에 대해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27.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야간활동이 불안한 가장 큰 원인은 가로등이 없어서로 나타남**
 - 야간활동이 불안한 가장 큰 원인은 ‘가로등이 없어서’가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인적이 드물어서’ 34.8%, ‘우범지역이므로’ 0.8% 순으로 나타남
 -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가로등이 없어서’(52.5%)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
- **야간활동 안전성에 대한 대처방법(행동)으로는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가 가장 높음**
 - 2019년에는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가 42.9%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된 반면, 2021년에는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가 61.4%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
 - 서부권의 경우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에 72.7% 응답하고 중부권(47.9%)에 비해 24.8%p 높게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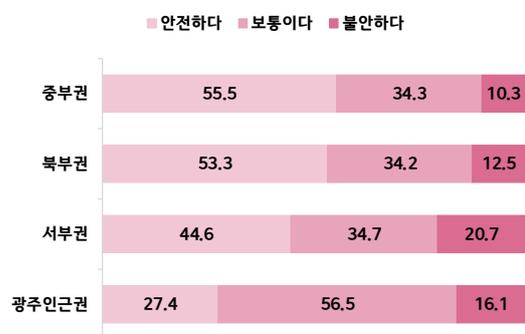
◀ 연도별 야간활동 안전성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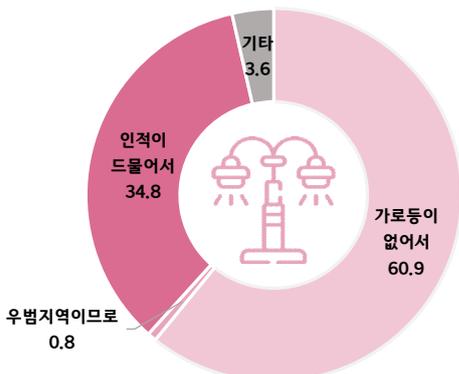
◀ 지역별 야간활동 안전성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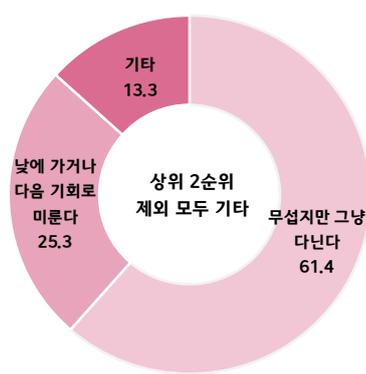
◀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

(단위 : %)



◀ 야간활동 불안에 대한 대처방법 ▶

(단위 : %)



야간활동 안전성 - (1) 안전성

(단위 : %)

구 분	계	안전하다			보통이다	불안하다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비교적 안전하다		불안하다	비교적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	
2021년	100.0	49.6	11.8	37.8	36.7	13.7	11.7	2.0	
2019년	100.0	54.1	17.3	36.8	27.5	18.3	13.1	5.2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55.5	14.8	40.7	34.3	10.3	9.5	0.8	
북 부 권	100.0	53.3	13.6	39.7	34.2	12.5	9.6	2.8	
서 부 권	100.0	44.6	7.8	36.8	34.7	20.7	17.0	3.7	
광주인근권	100.0	27.4	3.8	23.6	56.5	16.1	14.4	1.7	

야간활동 안전성 - (2) 불안한 원인

(단위 : %)

구 분	계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이므로	인적이 드물어서	기타
2021년	100.0	60.9	0.8	34.8	3.6
2019년	100.0	52.5	3.7	39.2	4.6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58.2	1.1	38.7	2.0
북 부 권	100.0	69.4	0.0	28.8	1.8
서 부 권	100.0	65.6	1.4	29.8	3.2
광주인근권	100.0	39.1	0.0	49.1	11.9

야간활동 안전성 - (3) 대처방법(행동)

(단위 : %)

구 분	계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조금 멀더라도 돌아서 간다	집 앞까지 택시를 탄다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기타
2021년	100.0	61.4	0.9	5.6	4.8	25.3	0.0	2.0
2019년	100.0	37.6	4.0	3.0	7.3	42.9	0.4	4.7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47.9	0.0	12.2	6.5	31.4	0.0	2.0
북 부 권	100.0	66.2	1.9	0.0	4.5	27.4	0.0	0.0
서 부 권	100.0	72.7	1.3	5.1	0.0	17.0	0.0	4.0
광주인근권	100.0	56.6	0.0	0.0	14.6	28.8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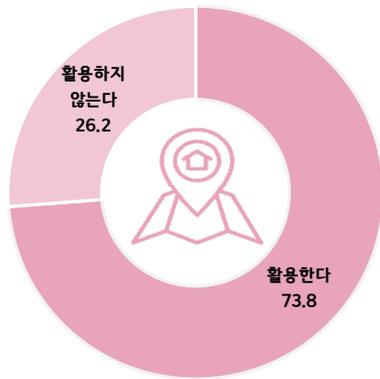
3 - 10. 도로명주소 활용률

장성군민 4명 중 3명은 도로명주소 활용 도로명주소를 주로 활용하는 분야는 배송관련

- **장성군민 4명 중 3명은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응답함**
 - 도로명주소 활용여부에 대하여 ‘활용한다’는 73.8%, ‘활용하지 않는다’는 26.2%로 응답함
 - 편리성 여부에 대하여 ‘편리하다’는 81.0%, ‘불편하다’ 1.5%, ‘보통이다’ 17.5%로 나타남
 - ‘편리하다’의 응답비율이 2019년에 비하여 10.7%p 증가한 모습을 보임
 - 15세~29세가 ‘활용한다’에 93.3%의 군민이 응답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응답비율이 감소함
- **도로명주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배송관련으로 나타남**
 - 주로 활용하는 분야에 대하여 ‘배송관련’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길찾기’ 39.9%, ‘주소찾기’ 12.3% 순으로 나타남
- **도로명주소가 불편한 가장 큰 이유는 홍보 부족으로 보임**
 - ‘홍보 부족’의 응답비율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옛 주소에 익숙’ 39.9%, ‘체계가 어려움’ 12.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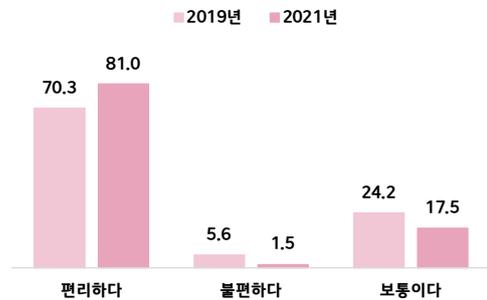
◀ 도로명 주소 활용 여부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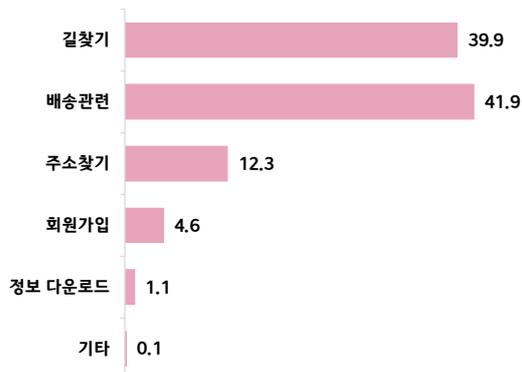
◀ 도로명 주소 편리성 여부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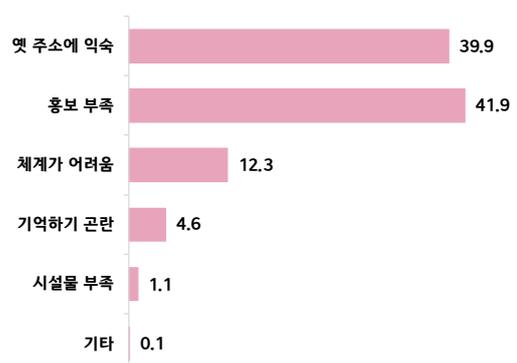
◀ 주로 활용하는 분야 ▶

(단위 : %)



◀ 활용이 불편한 이유 ▶

(단위 : %)



도로명주소 활용률 - (1) 활용여부 및 편리성 여부

(단위 : %)

구 분	계	활용한다					활용하지 않는다
			소계	편리하다	불편하다	보통이다	
2021년	100.0	73.8	100.0	81.0	1.5	17.5	26.2
2019년	100.0	78.7	100.0	70.3	5.6	24.2	21.3
<연령별>							
15~29세	100.0	93.3	100.0	84.2	0.0	15.8	6.7
30~39세	100.0	88.7	100.0	82.3	2.2	15.4	11.3
40~49세	100.0	91.9	100.0	77.0	2.1	20.8	8.1
50~59세	100.0	83.5	100.0	83.3	0.5	16.1	16.5
60세 이상	100.0	55.2	100.0	79.4	2.3	18.4	44.8
65세 이상	100.0	48.0	100.0	77.2	2.0	20.8	52.0

도로명주소 활용률 - (2) 주로 활용하는 분야(다중응답)

(단위 : %)

구 분	계	길찾기	배송관련	주소찾기	회원가입	정보 다운로드	기타
2021년	100.0	39.9	41.9	12.3	4.6	1.1	0.1
2019년	100.0	41.5	44.1	8.4	3.2	2.6	0.1
<연령별>							
15~29세	100.0	28.8	39.6	19.6	9.9	2.1	0.0
30~39세	100.0	37.7	34.2	14.7	13.4	0.0	0.0
40~49세	100.0	45.5	39.3	12.4	1.6	1.2	0.0
50~59세	100.0	44.9	38.5	12.7	2.7	1.3	0.0
60세 이상	100.0	41.3	49.9	6.6	1.1	0.9	0.3
65세 이상	100.0	41.9	52.5	4.3	0.0	0.9	0.4

도로명주소 활용률 - (3) 활용이 불편한 이유(다중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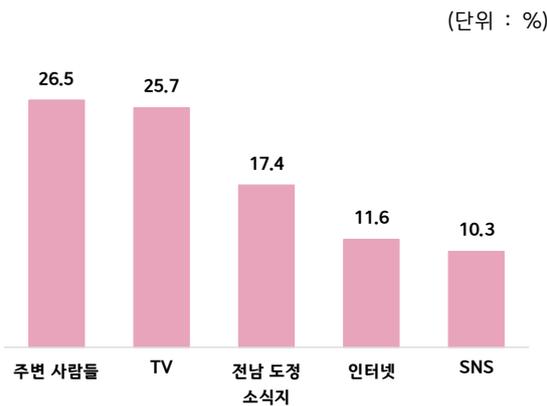
구 분	계	옛 주소에 익숙	홍보 부족	체계가 어려움	기억하기 곤란	시설물 부족	기타
2021년	100.0	39.9	41.9	12.3	4.6	1.1	0.1
2019년	100.0	37.3	11.3	24.0	15.1	7.2	5.2
<연령별>							
15~29세	100.0	28.8	39.6	19.6	9.9	2.1	0.0
30~39세	100.0	37.7	34.2	14.7	13.4	0.0	0.0
40~49세	100.0	45.5	39.3	12.4	1.6	1.2	0.0
50~59세	100.0	44.9	38.5	12.7	2.7	1.3	0.0
60세 이상	100.0	41.3	49.9	6.6	1.1	0.9	0.3
65세 이상	100.0	41.9	52.5	4.3	0.0	0.9	0.4

3 - 11. 행정정보 획득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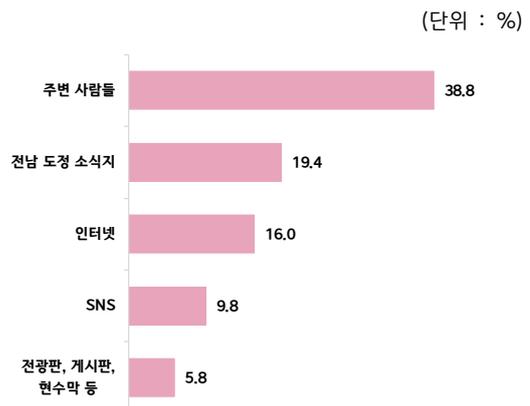
전라남도과 장성군의 행정정보를 얻는 주된 수단은 주변사람들

- 장성군민 5명 중 2명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전라남도의 행정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 행정정보 획득 매체에 대하여 ‘주변사람들’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TV’ 25.7%, ‘전남 도정 소식지’ 17.4% 순으로 나타남
 - 2021년과 달리 2019년에는 25.8%로 ‘TV’가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짐
- 장성군민 5명 중 2명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장성군의 행정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 시·군정 행정정보 획득 매체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TV’ 19.4%, ‘인터넷’ 16.0% 순으로 나타남
 - 2019년에도 ‘주변사람들’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에는 9.1%p 증가함

◀◀ 전라남도 도정정보 습득 수단 ▶▶



◀◀ 시·군정 정보 습득 수단 ▶▶



행정정보 획득 매체

(단위 : %)

구 분	계	전남 도정 소식지	TV	라디오	신문	전광판, 게시판, 현수막 등	인터넷	SNS	반상 회보	주변 사람들	기타
(1) 전라남도 도정정보 습득 수단											
2021년	100.0	17.4	25.7	0.8	4.1	2.0	11.6	10.3	0.5	26.5	1.0
2019년	100.0	20.2	25.8	1.0	1.5	6.8	9.2	8.4	1.5	25.1	0.6
(2) 시·군정 정보 습득 수단											
2021년	100.0	19.4	3.4	0.2	3.8	5.8	16.0	9.8	1.2	38.8	1.4
2019년	100.0	14.4	19.8	1.1	2.5	9.8	13.1	6.3	2.9	29.7	0.5